

# 현대사회에 던지는 긍정 메시지

### 드영미술관 청년작가 기획전 내일부터 '그림에도 불구하고' 김소희·임송은 작가 작품 선봬

2022년 드영미술관 청년작가 기획전 '그림에도 불구하고' 전이 오는 2일부터 27일까지 드영미술관 3전시실에서 열린다.

'그림에도 불구하고'는 현대사회에서 무기력을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전시다. 광주에서 활동 중인 청년작가 김소희, 임송은이 자신들만의 색이 담긴 회화 및 설치 작품을 선보인다.

현대사회에서는 끊임없는 경쟁과 갈등으로 불안함을 느낀다. MBTI와 같은 각종 콘텐츠를 통해 자신의 기질과 성향을 객관적으로 되돌아 보지만, 그러한 지표는 개개인의 고유한 특성을 파악하기에 한계를 지닌다.

이번 전시는 이처럼 혼란스러운 사회에서 '진정한 나'는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시작된다. 현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이 어떻게 내적 성장을 이뤄나가고 있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목적이다.

김소희 작가는 현대 사회에서 느껴지는 '외로움'이라는 감정에 주목하고, 이를 시각화해



▲김소희 '마주하다'  
◀임송은 'Flowing mountain'

자신의 삶을 되돌아본다.

작가는 자신이 느끼는 외로움을 홀로 서 있는 인물과 단조로운 모노톤의 화면으로 표현한다. 그로 인한 삶의 무게는 '눈(雪)'으로 표현했다. 눈이 녹아 물이 되고 증발돼 사라지듯 작가는 인간의 외로움 또한 눈처럼 증발돼 무너지고 성장하는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음을 이야기한다.

임송은 작가는 온전한 '나'를 알아가기 위한 인간의 태도를 이야기한다. 작가는 일상에서 나타나는 인간의 태도 중 하나인 '편견'에 주목한다. 작가는 이러한 인간의 고정관념이 객관적이고 유희화된 지표에 사로잡혀 그 이상을 발견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다고 본다.

작가는 의도적으로 흘러내린 화면을 구성한다. 이를 통해 개개인의 특성 또한 물감의 유동적인 형태처럼 하나로 단정할 수 없음을 이야기한다. 타인과 나 사이의 다름을 인정하는 것은 타인과의 관계를 넘어 새로운 나를 발견할 수 있는 시작이 된다고 말한다.

이번 전시를 기획한 학예인턴 김혜민씨는 "예측할 수 없는 현 사회에 자리한 수많은 청년들이 우리 사회의 경쟁구도 틀 안에서 불안함과 우울감을 느끼고 있다"며 "본 전시를 통해 '나'를 발견하고 삶의 의미를 고찰해보는 시간을 경험함으로써, 타인에 의해 흔들리지 않는 주도적인 삶을 개척해나갈 바란다"고 말했다.

/이나라 기자

### 빛가람 국제평화영화제 7~9일 혁신도시서 개최 김대중노벨상 본상 김동호



김동호

2022 빛가람 국제평화영화제가 오는 7~9일 빛가람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일원에서 열린다.

'희망의 빛 함께하는 평화'를 주제로 하는 이번 영화제는 개·폐막작을 포함한 10개국 30여편의 다양한 영화들이 소개된다. 영화제는 7일 개막식과 동시에 제10회 김대중 노벨평화영화상 수상식을 갖는다.

김대중 노벨평화영화상은 문화예술에 대한 각별한 사랑을 바탕으로 문화예술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했던 김대중 대통령의 뜻을 계승해 인류의 평화공존과 인권신장에 기여한 작품이나 감독, 영화·예술에 기여한 영화인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본상 수상자는 김동호 전 부산국제영화제 위원장이 선정됐다. 김 전 위원장은 부산영화제를

### 6~10일 아시아문화교육 워크숍 ACC, 9일 국제 심포지엄 개최

코로나19 이후 세계적인 문화예술기관의 문화 교육에 대한 변화와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 마련됐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오는 6일부터 10일까지 ACC 문화교육동 강의실에서 2022 아시아 문화교육 네트워크 워크숍을 진행한다. 9일엔 2022 아시아문화교육 국제 심포지엄을 ACC 국제회의실에서 개최한다.

한국을 포함해 모두 11개국 18개 문화예술기관이 참여하는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이후의 문화예술 교육 사례와 다양한 현안을 논의하고 상호 교육협력 기회를 다지는 자리다.

6~10일 진행되는네트워크 워크숍은 '아시아 문화예술기관 상호 발전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교류와 협력'을 주제로 ACC를 비롯해 아시아 지역 10개국 16개 문화예술기관 교육담당자가 참여한다.

/최진화 기자

### 김성수의 '이달의 핫 클래식'



### 광주시향·임윤찬 : 베토벤·윤이상·바버



광주시립교향악단(지휘 홍석원)이반 클라이번 콩쿠르에서 최연소 우승을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은 피아니스트 임윤찬과 함께 '베토벤·윤이상·바버' 앨범을 지난 달 28일 발매했다. 지난 10월 8일 통영국제음악당에서 라이브로 연주한 이번 실황 앨범에는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5번 '황제', 윤이상 '광주여 영원히', 바버 '현을 위한 아다지오' 곡과 함께 앙코르로 연주한 모쉴루스 '정원의 소녀들', 스크리아빈 '2개의 시곡' 중 1번, 음악 수첩 등 3곡이 포함됐다. 특별히 이번 앨범에는 피아니스트 임윤찬과 지휘자 홍석원의 특별 인터뷰도 포함돼 음악적인 해석과 생각을 함께 엿볼 수 있다. 초도 한정으로 엽서 3종과 포스터 1종도 함께 증정된다.



### 베토벤 : 교향곡 전곡[5CD]

1 DAVID ZINMAN 2010  
LEONARD BERNSTEIN 1978 2  
3 NIKOLAUS HARNONCOURT 1988  
HERBERT BLOMSTEDT 2003 4  
5 MARISS JANSONS 2008  
BEETHOVEN LIVE  
6 HOGER NORRINGTON 2004  
CARLOS KLEIBER 1983 7  
8 PHILIPPE HERREWEGHE 2003  
ANTAL DORÁTI 1985 9  
CONCERTGEBOUWORKEST

베토벤, 9명의 명지휘자를 호명하다. 시 음반들을 모은 박스몰들과 달리, 이전에 출시된 적이 없는 녹음들이 주를 이룬 이 박스몰은 1978~2010년의 베토벤 명연주 9곡을 엄선한 것이다. 교향곡 1번은 데이비드 진먼(2010년6월9일 실황), 2번은 번스타인(1978년3월8일 실황), 3번은 아르농쿠르(1988년10월16일 실황), 4번은 블름슈타트(2003년9월19일 실황), 5번은 안손스(2008년5월9일 실황) 6번은 노링턴(2004년10월7일 실황), 7번은 카를로스 클라이버(1983년10월20일 실황), 8번은 헤레베체(2003년10월5일 실황), 9번은 도라티(1985년4월28일 실황)의 연주를 담고 있다. 이중 실질적으로 RCO를 이끌었던 상임지휘자는 안손스(2004~2015년) 외에는 없다. 올드팬부터, 원전연주의 미학, 정통성 있는 깊이감 등 지휘자의 개성에 따라 베토벤의 명작들을 향유할 수 있다. 5장의 CD로 구성됐으며, 120쪽 분량의 해설지가 포함되어 있다.



### 윤홍천 슈베르트 피아노 소나타 III

SCHUBERT PIANO SONATAS III WILLIAM YOUN

'알프레드 브렌델의 섬세한 뉘앙스와 다니엘 바렌보임의 따뜻한 음색 모두 갖춘 피아니스트 윤홍천'의 슈베르트 피아노 소나타 III가 발매됐다. 그는 "슈베르트의 음악은 고독한 영혼을 위해 존재합니다"라고 소개했다. 유학시절 슈베르트 음악을 알게된 윤홍천에게 '슈베르트의 피아노 소나타'는 가장 어두운 순간 위로와 달콤한 꿈과 방랑, 그리고 희망으로 안내했다. 필립 솔츠(녹음 엔지니어)와 녹음기간 동안 벅슈타인 피아노를 통해 3년 동안 7장의 앨범으로 슈베르트의 노래를 표현해냈다. 그는 '피아노의 시인'이라는 수식어가 무색할 정도로 완벽한 테크닉과 섬세한 감성으로 작품에 생명을 불어넣었다.



### 바그너 : 라인의 황금

RICHARD WAGNER DAS RHEINGOLD WILHELM FURTERER SIR GEORG SOLTI DER RING DES NIBELUNGEN

바그너 '니벨룽의 반지' 역사상 최초의 전곡 스테레오 스테레오 녹음인 게오르크 솔티와 빌헬름의 절대 명반이 새롭게 오리지널 마스터에서 24bit/192kHz 리마스터링을 거쳐 재발매 된다. 솔티 사후 25주기에 공개돼 2023년 바그너 사후 140주기와 탄생 210년을 기념하는 거대한 축제로 이어질 예정인 가운데, 우선 '라인의 황금'이 소개된다. 골든 링으로 디자인 된 3LP 박스세트와 LP 크기의 패키지로 발매 되는 2SACD버전으로, LP는 하프스피드 마스터링 예정이며, 특히 본사 정식 발매로는 처음으로 만나 SACD를 놓칠 수 없다.

www.jndn.com 인터넷으로 기사를 다시 볼수 있습니다

알뜰한 정보! 행복한 신문!

전남매일

직장인 "휴술이 좋아요"...외식업계 올상

전남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취임식

전남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취임식

상쾌한 아침을 여는 신문!  
독자에게 새롭게 정확한 뉴스!!  
소신과 대안이 있는 정보!!!  
따뜻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로 여론을 선도하며,  
소통과 화합을 통해 지역신문 발전에 큰 힘이 되겠습니다.

◆ 사·군·지사

광산지사	010-3601-1102	장흥지사	010-3613-6114
목포(갑)	010-3272-2765	강진지사	010-6646-1241
목포(을)	010-3635-6777	해남지사	010-8181-2627
여수지사	010-8648-1236	영암지사	010-4624-8409
순천지사	010-2547-7890	무안지사	010-3621-8989
나주(갑)	010-7706-2410	함평지사	010-3600-0500
나주(을)	010-3713-7458	영광지사	010-8666-2882
담양지사	010-8004-9885	장성지사	010-3666-1300
곡성지사	010-6764-6100	완도지사	010-5619-7020
구례지사	010-6636-3039	진도지사	010-3624-4777
고흥지사	010-9151-2828	신안지사	010-4627-1472
화순지사	010-3100-0386	보성지사	010-5259-6441

M 전남매일

본사 주소 : (우)61639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로 398 (사동)  
 기사제보 : T. 062-720-1050 / F. 720-1080 / jndn@chol.com  
 광고문의 : T. 062-720-1017 / F. 720-1020 / jnm1000@hanmail.net